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12월 14일(금) ..(음력 11월 7일).. Пятница 14 декабря 2018 г. № 48(11681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12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옥차브리>영화관에서 2019-2021년 사할린주예산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헌법의 날 기념

12월 12일은 러시아 헌법의 날이다. 올해는 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 25주년을 맞이했다. 헌법의 날 기념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 주정부의 감사장을 수여했는데 수여자 중에는 네벨스크시의 전 시장 박 블라지미르도 있었다.

헌법의 날에는 전통적으로 14세가 된 우수 학생들에게 첫 러시아 여권을 수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기념행사를 수행했다.

### 김포문화재단, 사할린에서 전통예술 공연과 전시회 열려

12월 14(금)-15(토)일에 사할린에서 대한민국 김포시 (재)김포문화재단 '김포 평화민속예술단'의 전통예술 공연과 김포를 소개하는 미술전시회가 개최된다.

첫 공연은 14(금)일 오후 3시 네벨스크시 문화회관에서, 이튿날 15(토) 오후 4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통예술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전수자의 무대(무용, 민요 등)로 이루어지며 전시에는 김찬섭 외 11명의 화가들의 작품으로 김포 8경을 담은 한국화 및 김포의 작은마을(보구곶리) 풍경사진 등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소개하는 아름다운 24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 세르게이 나드사진, 러시아 우수 시장 25순위에 들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러시아 우수 시장 선정 25순위에 들어갔다. 조사는 <레이팅>정보센터와 러시아 연방 정부 소속 금융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정보센터는 10월-11월간 88개의 지역 중앙도시와 러시아의 산업도시 시장활동을 분석했는데 세르게이 나드사진은 18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그의 활동이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1위에는 일수르 메트손(카잔), 2위에는 세르게이 소바닌(모스크바)이 올랐다.

### <2018 러시아 자원봉사자> 지역단체 경연 결과 발표

지난 12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틀리차>비즈니스센터의 콘그레스홀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8 러시아의 자원봉사자>지역단체 경연 결과 발표 시상식이 있었다. 사할린 봉사자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어린이들을 위한 도움>, <공동 활동>, <예술에서 영감을 얻은 사람> 등 11개의 부문에 참가했다. 안톤 자이체브 사할린주 정부 부수상은 "올해는 자원봉사자의 해다. 자원봉사 활동에 사할린 주민 30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고령층 노인들을 돕고, 주내 행사에만 아니라 러시아 월드스킬스(WorldSkills Russia)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앞으로 첫 <아시아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대회 때 활동할 수 많은 자원봉사자가 준비되었다."고 강조했다.

##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으로 알레리 리마렌코 임명

12월 7일부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의 조기 권한 종료와 관련하여 연방법에 따라 사할린주지사를 선출하기 전에 리마렌코 알레리 이고레위츠를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으로 임명했다.



지난 10일(월) 19시 사할린주 정부 대강당에서 새로 부임한 알레리 리마렌코 소개식이 있었다. 이 행사에 주·시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체 지도자, 사할린주주마 의원, 헌법수호기관 대표자, 사회단체 활동가, 언론계 대표 등이 참가했다.

러시아 정부 부총리인 유리 트루트네브 대통령극동연방구전권대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 임명령을 대독하고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했다.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간단한 인사말을 전했다.

주지사 권한 대행은 "나는 여러분을 보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우선 푸틴 대통령이 나에게 밝힌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연방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사할린주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일하고 싶도록 즐겁고도 편안하게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부분만 아니라 조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고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언급했다. 사할린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알고 있다며 서로 동료로서 이해하고 기존의 업무 종사자들 중 누구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 사할린주 예산공청회 진행

사할린주가 2개월 반 이상 주지사의 부재 속에 2019년, 그리고 2019-2021년간 주예산의 승인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으나 알레리 리마렌코가 주지사 권한 대행으로 부임된 다음 날, 주지사 대행은 사할린주주마에 수정된 주 예산안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주주마 의원 총회에서는 이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고 주민 공청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12일(수) <옥차브리>영화관에서 2시간 이상 진행됐다. 공청회를 연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사할린주의 예산은 러시아 다른 지역들의 예산보다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사할린주 정부 웨라 셰르비나 수상과 안나 하르첸코 재정부 장관이 설명했다.

2019년에 주예산의 수입액은 1590억 루블리, 지출액은 1720억 루블리로 계획하고 있다. 석유가스프로젝트에서의 수입액은 여전히 주예산의 주요 수입원(931억 루블리)이다.

지출액에서는 가장 많은 858억 루블리가 사회적 분야에 지급되고, 교통과 도로관리에는 369억 루블리, 공공경리 분야에는 273억 루블리를 지출할 계획이다.

배당된 예산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는 응급처, 유아동병원, 제4진료소의 2개 진료과를 설치할 예정이다.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홀스크에는 중앙구역병원들의 새 건물들이 건설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유치원 5개소, 주내 10개 구역에서도 유치원을 공사할 계획이다.

주 예산안이 발표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우선 주주마의 5개 위원회에서 제안과 질문을 하고 시민 20여 명이 질문을 했다. 이에 주로 해당 부서의 책임자들이 답변했다. 공청회에서 요청한 제안들은 공청회 의정서에 기록되었다.

<p>새고려신문</p>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p>	<h2>2019년 신문주문 계속</h2> <p>(본사 편집부)</p>	
---	--	--

#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축하하며

지난 7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그동안 교육원이 걸어온 과정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러시아인과 한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고, 쉽고 과학적인 한글을 매개로 배움과 나눔을 가르쳤고,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나누며 우정과 열정을 펼쳤다.” 라는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장의 인사말이 참가자들에게 나뉘진 부름땀에 적혀 있었다.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은 행사를 찾아온 분들을 환영하고 귀빈을 소개하였다. 그중에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황명희 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사관 히라노 류이찌 총영사를 비롯해 주·시정부 관계자, 주내 학교 교장·교사·학생, 교육원 수강생, 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황명희 한국출장소장, 주교육부 엘레나 바비나 부장관, 드미트리 폴루보야리노브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대내정책국 부국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 임 엘비라 학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김나지아의 마리아 굴라코와 교장 등이 개원 25주년을 축하하면서 사할린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꾸준히 해온 교육원에 감사드리며 교육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황명희 소장이 언급한 “사할린한국교육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25년간 사할린 한인 동포는 물론 재외국민과 사할린 주민들에게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원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사할린 한인 동포분들의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동질성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상호간의 이해를 제고하고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할린한국교육원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면서 한국-사할린 나아가 한국-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란 축사는 참석자들 모두 공감하는 바였다.

이날 주 교육부 엘레나 바비나 부장관은 김주환 교육원장에게 주 정부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교육원 측에서도 교육원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은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10년이상 교육원 한국어 강사로 활약한 전영희 선생이 받았다.

이날 축하 공연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 홀스크, 코르사코프시의 한국어 채택학교·한글학교 학생들의 노래와 k-팝 춤으로, 동요, 시낭송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우리 미래>유치반은 귀여운 율동을 하면서 <울챙이>동요를 불렀다. 또한 문화센터 소속 중·노년의 여성들로 구성된 <아리랑>무용단이 <코스모스의 춤>을 추어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언제나 훌륭한 공연을 펼치는 <에트노스>학교 학생들의 공연은 러시아민속 앙상블의 민요



와 한민족문화예술과 학생들의 화관무 무용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동양김나지아의 왜채슬라브 한국어 교사가 연출한 학생들의 k-팝 공연은 장내 분위기를 뜨겁게 했다.

<오스트로브>무술센터의 택원도 선수의 시범, 당수도 선수들의 기술이 잇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특히 당수도 선수들은 깨진

유리에 누워 몸에 도끼날을 세우고 그 위에 큰 돌판을 얹은 후 망치로 깨기도 해 관객들은 이 광경에 대단히 놀라워 했다.

또한 안수학 <오스트로브>센터장은 목판 격파와 돌판 10장 이상을 격파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기념행사는 케이크 커팅과 다과회로 마무리되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이 모 저 모

### 사할린 <사회적 체력단련>기획, 전국 자원봉사기획 경연대회에서 수상

사할린의 자원봉사기획 <사회적 체력단련>이 <2018 러시아 자원봉사자>전국 경연대회에서 <내 주위에>부문 상을 수상했다. 참가자들의 시상식은 모스크바에서 이뤄졌다.

<사회적 체력단련>은 사할린 청년주도센터의 전문 강사인 크세니아 오가르코와가 기획했다. 오가르코와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노르딕 워킹, 댄스 등 체력단련에 따른 무료 종합체력단련 전체를 개설했다. 사할린주 정부는 이 기획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오가르코와의 말에 따르면 기획 발표로 블라디미르주와 첼랴빈스크주에서 온 참가자들도 자신의 지역에서 추진해보려고 분발했고 참가자들 전체가 이 기획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2018년 <러시아 자원봉사자>경연대회에는 약 1만5000명이 참가 지원했다. <사회적 체력단련>기획 외에도 사할린의 자원봉사기획 3개(<어릿광대 의사>, <착한 일에 서두르세요>, <독서는 해롭지 않다. 독서하지 않는 것이 해롭다>)가 경연에 출전했다. 주 스포츠관광청년정책부 소식에 따르면 현재 주내에서는 자원봉사 개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보조금과 조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 Сахалинский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победил в 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волонтерски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ский проект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победил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Доброволец России – 2018» в номинации «Вокруг меня». Награждение участников состоялось в Москве.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 проект Ксении Огарковой, специалиста 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Она создала целый комплекс бесплатных тренировок по фитнесу, танцам, скандинавской ходьбе и занятий на беговых лыжах. На работу проекта выделяет гран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По словам Огарковой, презентация проекта на конкурсе вдохновила ребят из Челябинской и Владимир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стить соцфитнес в своих регионах у

себя, да и в целом другие участники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и задавали вопросы.

В 2018 году на конкурс «Доброволец России» заявки подали 15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Кроме «Социального фитнеса», в нем участвовали три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екта: «Доктор клоун», «Спешите делать добро», «Читать не вредно — вредно не читать».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спорта, сейчас в области создаются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волонтерства. Добровольца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грантовую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 사할린, 11 월에 식품류와 휘발유 가격 인상

사할린과 쿠릴에 11월 한 달간 식품 소비 세트 가격이 5500루블리로 인상되었다. 육류, 어류, 과일과 몇몇 우유제품, 휘발유 가격이 인상되었다. 반대로 채소와 메밀의 가격은 내려갔다.

사할린 지역에서의 소비가격 변동은 사할린통계국이 조사 발표했다. 무엇보다 11월에 기장(1킬로당 65루블리), 냉동 및 냉장 닭고기(1킬로당 188루블리), 닭다리(1킬로당 199루블리), 양고기(1킬로당 544루블리)의 가격이 상승했다.

트위록(우유제품), 저온 살균 우유, 치즈류, 쇠고기, 햄, 돼지 고기, 쌀, 냉동 생선(연송어 제외)과 통조림, 해바라기유, 설탕, 바나나, 배, 사과, 오렌지의 가격도 오른것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메밀 가격은 평균 1킬로당 45루블리로 저렴해지고 올리브유, 밀가루, 멸균우유, 보르쉬(러시아 수프) 채소 세트 - 양배추(1킬로당 23루블리), 당근(1킬로당 46루블리), 감자(1킬로당 32루블리), 비트(1킬로 42루블리) - 의 가격은 내려갔다. 토마토는 가격이 올라 평균 가격 188루블리이고 레몬과 포도 가격은 조금 내렸다.

자동차 연료 디젤은 3,6루블리 인상되었고 휘발유 가격은 0,4% (1리터당 АИ-92 - 46 루블리, АИ-95 - 48 루블리, АИ-98 - 51 루블리) 상승했다. 가을의 마지막 달에는 신발류, 승용차, 세탁기, 금속그릇, 아동의류, 진공소세기, 담배류의 가격이 인상되었다.

조사된 대부분의 의약품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케토프로펜, 약초액, 왈리돌, 에날라프리드의 가격은 인상되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신용대출 이용료와 미용실 서비스 가격이 조금 올랐고 해외여행 비용은 1.4% 내려

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한 달간 최저 식품 소비 세트의 가격은 5308,83 루블리, 포로나이스크에서는 - 5226,54 루블리, 코르사코프는 - 5351,31 루블리, 오히려 - 6203,66루블리로 나타났다.

### На Сахалине в ноябре подорожали продуктовая корзина и бензин

В ноябре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увеличилась стоимость миним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ового набора, составив примерно 5,5 тысячи рублей. Цены выросли на мясо, рыбу, фрукты и некоторую молочную продукцию, а также автомобильное топливо. Овощи и гречка за месяц, наоборот, подешевели.

Изменени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дсчитал Сахалинстат. Больше всего в ноябре подорожали пшено (65 рублей/кг), охлажденные и мороженые куры (188 рублей/кг), куриные окорочка (199 рублей/кг), баранина (544 рублей/кг).

Рост цен зафиксирован на творог, пастеризованное молоко, твердые и мягкие сычужные сыры, говядину, колбасные изделия, свинину, рис, мороженую рыбу (кроме лососевых) и консервы, подсолнечное масло и сахар-песок, бананы, груши, яблоки, апельсины.

Гречка, напротив подешевела - в среднем, килограмм этой крупы стоит 45 рублей. Снизились цены на оливковое масло, пшеничную муку, стерилизованное молоко, «борщевой набор» овощей - капуста (23 рубля/кг, морковь (46 рублей/кг), картофель (32 рубля/кг), свекла (42 рубля/кг). Значительно подорожали помидоры, их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 188 рублей. Незначительно подешевели лимоны и виноград.

На 3,6 рубля подорожало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Цена на бензин подросла на 0,4 процента: АИ-92 - 46 рублей, АИ-95 - 48 рублей, АИ-98 - 51 рубль за литр. В последний месяц осени стали дороже обувь, легковые автомобили, стиральные машины, металлическая посуда, детская одежда, электропылесосы, табачные изделия.

На большинство наблюдаемых видов медикаментов и медицинских товаров отмечалось снижение цен, однако кетопрофен, настойка пустырника, валидол, эналаприл подорожали.

В сфере услуг зафиксировано небольшое повышение платы за пользовани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м кредитом и услуги парикмахерских. На 1,4 процента снизилась стоимость зарубежных туров.

Стоимос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корзи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авила 5308,83 рубля, в Поронайске - 5226,54 рубля, Корсакове - 5351,31 рубля, в Охе - 6203,66 рубля.

(7면에 계속)

### 한민족의 전통 스포츠: 사할린에서 태권도와 씨름 발전 기원

지난 9일(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기념 태권도·씨름축제가 펼쳐졌다.

그림은 시범 공연과 경연 대회로 이어졌다. 오전에는 태권도 선수 53명이 자신의 기술을 선보였고 오후에는 씨름 초보자 경기

도 꽤 많았다.

이날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 안수학 <오스트로브>무술센터 관장, 김 드미트리 사할린주씨름협회 부회장,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등이 선수들을 환영하고 격려해주었다. 특히 김주환 원장은 사할린에서 한민족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와 씨름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당수도 사범들은 이날 한국에서 보내진 스포츠북과 띠를 받았다.

태권도 홈스킵과 유즈노사할린스킵이 서로 다른 시범을 보여주며 박수갈채를 자아냈다.

당수도 사범들은 이날 개원 25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미 보여준 기술쇼(깨뜨린 유리에 누워 몸에 도끼날을 세우고 그 위에 큰 돌판을 얹은 후 망치로 깨는 것)를 다시 하여 이날 무술축제를 찾아온 관객들 역시 놀라움을 금치지 못했다.

선수들의 경기인지라 승부욕이 대단했지만 선수들 간 팀워크도 매우 훌륭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메달과 컵으로 시상되었다.

선수들은 이날 맛있는 도시락을 직접 장만한 사할린주한인회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이번 행사는 <오스트로브>무술센터(센터장 안수학)와 사할린주 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주한인협회가 후원했다.

아침 10시부터 문화센터에는 어린 선수들로 흥성거리는 가운데 성인 선수들과 사범, 그리고 학부모도 적지 않았다. 프로

에 27명(그중 여학생 4명)이 출전해 승부를 다투었다. 경기는 흥미롭게 진행되고 응원 목소리도 멀리서 들려왔다. 그리고 씨름을 여자들도 할 수 있는게 신기했다.

경기에는 유즈노사할린스킵 선수만 아니라 홈스킵, 체호브에서 온 선수들

###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으로 알레리 리마렌코 임명

(1면의 계속)

전문인사들이 부족할 경우 이전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초대하겠다고 하고 필요한 것은 함께 끌어올리는 일이라며 다른 주와 교류하고 협력하고, 배우며 관계를 구축해 가자고 종용했다. 니즈니노브고로드주의 주지사는 두 지역 간 협력을 제안했다며 효율적인 협력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한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할린의 가족으로 받아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표명을 전했다.

이날 새로운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 소개식은 10분 정도 진행되었다. 이번 주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사할린주정부 웨라 웨르비나 수상, 주두마 아.하포츠킨 의장, 유즈노사할린스킵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 사할린주 정부 관계자 등과 면담하고 여러 공식행사에 참가한다.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내년 9월에 치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무소속(독립적 후보)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할린주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현재 선거법에는 정당들이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순신 기자)

###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 알레리 리마렌코의 이력(간략)

- 1960년 10월에 하리코브에서 출생.
- 1983년 하리코브항공대학 졸업.
- 대학을 졸업한 후 소련 실험물리연구소에서 근무.
- <에지나야 러시아>당(통합당) 니즈니노브고로드 지부 설립자 중 한 사람.
- 1996-2001년 사로브시 의회 부의장.
- 그후 니즈니노브고로드주 정부에서 활동(주 건설 및 주택공공경리부 장관 등)
- 2003년 니즈니노브고로드주의 연방 감독관
- 2005년-2007년 니즈니노브고로드주 부지사, 주정부 부수상
- 2007년 <아톰네트고프로젝트(원자에너지프로젝트)>주식회사 니즈니노브고로드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이사.
- 2016년 로스아톰공사(러시아 원자력공사)의 기술기획국 국장, ASE아세(아톰스트로이엑스포르트(원자력 건설 수출) 그룹 회장(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건설을 하는 1등 회사로 인정)
- 경제학 박사. 연구서 3권 포함 25개 논문 집필.

### 출판기념회

### 허남영 작가의 문학세계에 빠져



지난 7일(금) 사할린의 허남영(허 로만) 작가. 시인이 사할린주미술 박물관에서 올 초에 출간된 책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책은 2권으로 구성되어있고 1권은 <노타랴(음표 라)>책이고 시, 에세이, 단편소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밝은 밤>이 2권은 조선 시조 번역본으로 돼 있다.

출판기념회는 책에 실린 엘레나 캄부로와 가수. 배우의 서문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다음은 관객 모두가 허남영 시인의 아름다운 작품세계에 빠져들었다. 2시간 동안 그는 기타를 치며 시를 낭송하고 미, 자연, 사랑, 우정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관객 중에는 허남영 시인의 오랜 팬들도 있었고 이날 처음 허 시인의 창작을 알게 된 사람

들도 있었다. 이날 허 시인은 주로 1권에 <노타랴>의 작품을 소개했는데 관객들은 2권 시조 번역본에도 많은 호기심을 가졌다. 그래서 허남영 시인은 2권을 제대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판기념회는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행사는 책 사인회로 마무리했다.

(배순신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 사할린과 한국: 문화 및 교육을 통해 상호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 형성

임 엘비라, 사할린국립대학 한국어교수

### 서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세계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이며 190 개 이상 민족이 살고 있다. 극동지역에 있는 러시아 점인 사할린 (2010년 1월 1일 사할린주 총인구는 510,800명)에는 100개 이상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중 84%는 - 러시아인이고, 5.4%는 - 한인이고, 4%는 - 우크라이나인이다. 사할린주는 러시아 내에 한인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에 정부는 다민족의 권리와 관련된 새로운 양상의 인권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내걸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국가의 민족 다양성을 나라의 힘으로 여기며 민족 간 화합 정책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뛰어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의 세계관, 의식이 더욱더 강조된다. 즉, 외국어를 배우면서 타민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전통에 대한 관용과 수용을 통해 인간의 가치에서 필요한 미덕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중요시 여긴다.

### 러시아 대학의 국제화 현황

러시아의 대외전략 및 동북아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면 러시아와 이웃국가들이 서로 안정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최근에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발전 정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웃 국가들과, ICEF ((International Consultants for Education and Fairs www.icef.com) 통계에 따라 전 세계의 5백만 명의 대학생들이 유학을 하고 2020년에는 8백3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다. 2015년에는 제일 많은 유학생들을 공급하는 지역은 아시아 국가였다. 세계의 모든 유학생들 중에 53%가 중국, 인도, 대한민국에서 온 아시아권 학생이다.

2016년 유네스코 통계에 따라 러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50 000명이고 총 유학생의 1.5%를 차지한다. 최근에 교육열이 높은 중국, 한국, 일본 아시아권 국가에 많은 러시아 학생들이 공부하러 나간다. 특히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유학하러 가고 싶은 러시아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는 2013년 9월에 러시아 연방 정부가 외국23개의 국가인 201개의 대학 학위 인정의 명령에 따라3개 한국대학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의 학위를 공식 과정 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러시아 교육부 통계에 따라2015/2016년에는 934 개의 러시아 대학 (총 학생수 4 573 600명)에서 27만 명 (2014/2015년에는 22만명)의 유학생이 공부한 결과가 나왔고 모든 러시아 대학생 수의 비율은 6%이다. 2013/2014년에는 러시아 총 유학생들이 구조원 출신 학생이 51.9%이고 아시아26.6%, 남아프리카 6.0%, 극동 및 북아프리카 5.7%, 서유럽 3.5%, 동유럽 1.8%, 라티나 1.5%, 발트 1.2%, 북미 및 오세안 1.1%, 북유럽 0.7%를 차지했다. 러시아의 유학생 수가 1년에 약 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2019/2020년에는 255,800명, 2029/2030년에는 570, 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할린국립대학의 러-한 대학생 교환프로그램 실시와 설문 조사의 결과

사할린국립대학의 러-한역사는 1991년에 한국어과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 1964년(모든 조선학교가 폐쇄)부터 1988년까지 24년 동안 한국어를 전혀 배울 기회가 없던 사할린에는 처음으로 사할린국립대 역사학과 내에 한국어 강좌를 시작했고 1991년에는 정식으로 한국어과를 개설했다.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Романа Хе "Нота ЛЯ" и просто душевный вечер!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поэт, бард и переводчик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Роман Хе 7 декабря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резентовал свой новый двухтомник.



Первый том называется «Нота Ля», в него вошли стихи и эссе, второй – «Светлая ночь» составлен из переводов корейских сиджо. В течение двух часов почитатели творчества Романа наслаждались исполнением его стихов под аккомпанемент гитары. В этот вечер он исполнил в основном свои стихи из книги "Нота ЛЯ", но участники презентации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и его переводами сиджо. Роман признался, что хочет сделать отдельно презентацию книги переводов сидж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презентации образовалась большая очередь за автографом признанн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эта.

Почитатели таланта Романа Хе о поэте и вечере.

**Татьяна Тё:**

*С творчеством Романа Хе я знакома лет десять, а кажется, что всю жизнь. Кажется, что я родилась и выросла вместе с ним, потому что вижу и чувствую те же светлые картины из памяти, которыми пронизаны его стихи и музыка. Я называю это созвучием душ, когда люди чувствуют, сознательно или бессознательно, как их сердца отзываются на строки этих книг. Не "вырывая" нас из повседневности, а нежно окутывая солнечными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из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тства, он помогает перенестись нам в глубинные уголки наших собственных сердец, где хранятся бесценные сокровища: голос мамы, тепло родных рук, дом, солнце, птицы, море и, конечно же, люди, осветившие однажды наш мир.*

*Созвучие душ - вот что притягивает к Роману и его творчеству, заставляя сердце таять и плакать светлыми слезами.*

*Он читает "по ромашковым полям" и я уже там - на этих полях, благодаря этот белый свет за счастливую жизнь! Он поет песню про свадьбу сестры, а у меня уже глаза полны слез светлой грусти... такой щемящей светлой грусти, будто собствен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всплывают в памяти и уносят в детство, где мы росли на берегу моря, слушали гудящие раковины и ловили солнечных зайчиков в родительском доме... Спасибо, что вы есть, Роман! Спасибо, что так созвучны наши томаринские души.*

**Пак Гисун:**

*Получила огром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вечера. Роман Хе - и российский поэт, и корейский поэт. Симбиоз двух начал даёт истинное наслаждение и находит отклик глубоко в душе. Он талант, талантище. Сколько романтики, любви к женщине, тонкий лиризм и много печали.*

*Он открыл для меня корейские сиджо. Его переводы, знакомство с корейским трёхстишием, только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потомки вспоминали его наравне с Ахматовой.*

*За что я благодарна Роману, так за то, что он наполнил сиджо музыкой и чувствами, убрал сдержанность эмоций. Я до сих пор нахожусь в очаровании поэзией и чарующего голоса под аккомпанемент гитары.*

**Виктория Бя**

## Центру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исполнилось 25 лет

10 декабря Центру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исполнилось 25 лет.

В Центре препод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знакомят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ой, организуют учебную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знакомительные поездк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фестивали культур и т.д.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 случаю 25-лет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состоялось 7 декабря. Гости съехались со многи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Как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Ким Джу Хван «Нам удалось показать, какая она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 тольк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но и всем жителям острова, рассказать о ней с помощью легкой и научн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а также открыть любовь и дружеские чувства к культуре прекрасной Кореи».

Праздничные номера подготовили школьники, изучающ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традиционное искусство, а также воспитанники спортивного центра «Остров». Звучали песни и стихи на корейском,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танцев К-поп. Свой подарок приготовили и учащиеся школы «Этнос». Русское отделение спело народную песню, а учащиеся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исполнили танец «Цветочный сад».

Зрелищ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подготовили спортсмены тансудо. Здесь были и битые стекла, и согнутый спортсменом железный прут, а также разбивание бетонного блока, уложенного на края двух топоров, острие которых упиралось прямо в тело

спортсмена.

В этот день Центру были вручены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в том числе и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арки и цветы.

Ну и какой же день рождения без торта. Он был большой и красивый.

25-летию Центра был посвящен и фестиваль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тхэквондо, сирым),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торого стали Цент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и Сахали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си-

рым. Около 60-ти спортсмен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Холмска и Чехов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и силы и технику в тхэквондо, около 30-ти ребят попробовали побороться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е сирым. Было весело и азартно.

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угостили ребят вкусным обедом.

Напомним, что в честь 25-лет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прошел также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он состоялся в октябре месяцев.

**Виктория Бя**

## Сахалинские тхэквондисты успешно выступил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Нальчике

В Нальчике прошел X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по олимпийскому тхэквондо (WTF) "Кубок Эльбруса". Участниками состязаний в столице Республики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ия стали свыше 8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15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рмен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Они оспарили награды в четыр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Уровень тхэквондистов, вышедших на доянг (специальный ковер для этого вида спорта), был очень высокий. Среди них — первые номера юношеской сборной страны.

— "Кубок Эльбруса" помогает его участникам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мастерство. На днях в Испании проходило первенство Европы, где два спортсмена из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ии завоевали две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В этом году наш турнир является мастерским, раньше такого не было, — 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ии Азретали Шокаров.

Отлично проявили себя на этих престиж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члены сборно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ак, в турнире юниоров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завоевали южносахалинцы Егор Федоров (до 48 кг) и Евгений Мамаев (до 63 кг). Каждый из них одержал по четыре победы.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45 кг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 Чан Хен Чер. Серебряными призерами также стали Роман Ильин (до 55 кг) и Георгий Боровиков (свыше 78 кг). Все они — из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На третью ступень пьедестала почета поднялись невеличанин Владимир Мажара (до 59 кг) и Александр Цо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48 кг).

— Дан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рекомендованы тренерами сборной страны как этап подготовки к первенству России и спартакиаде учащихся, — поясн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тхэквондо.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Сахалине самоучек англий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сделаю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педагогами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лагает тем, кт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своил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и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ойт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курс обучения и получить «корочку» педагог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д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живают тысячи нос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ередать свои знания не только детям, но и взрослым.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овместно с Тихоокеа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запускает проек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йдя курсы, люди, знающие языки на начальном и среднем уровне, смогут сами преподавать эту дисциплину. Форма обучения — очно-заочна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Курс рассчитан на 252 часа. Освоить его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озраста, пола и основной профессии.

— По окончании слушателям выдадут диплом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о том, что получена новая специальность. Эт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к высшему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среднему. Сегодня многие люди, которые 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о знают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не могут обучать других только по той причине, что у них н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документа. А полученный диплом предоставит им право преподавать в систем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аталья Лиед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курс записались пять человек. Вакантных мест осталось 20. Старт курсу планируют дать в февр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и документов ведется с 14:00 до 16:00 в Ассоциации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ица Сахалинская, 219, 2-й этаж.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962-154-88-65.

**(РИ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4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Бюджет фонда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остиг 1 трлн вон

Бюджет Фонда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первые за три года достиг 1 трлн вон.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10 декабря, бюджет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на 2019 год сократился на 6 млн 800 тыс. доллар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этим годом, составив 195 млн 300 тыс. долларов. Общий показатель фонда вырос на 15%, составив 1 трлн 106 млрд 300 млн вон или 982 млн 900 тыс. долларов. Отметка превышает 1 трлн вон впервые с 2016 года. Данный уровень держался с 2008 по 2016 год.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сходы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строение устойчивых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5,5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проведение встреч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й, 448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межкорей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18 млн 200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 В Сеуле проходит совещание глав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РК за рубежом

С 10 по 14 декабря в Сеуле проходит ежегодное совещание гла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РК за рубежом.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послы и генеральные консулы. В программе совещания - обсуждение актуальных тем, специальные лекции,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диалог с молодым поколением дипломатов.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обсудят, в частности, роль МИД в построении прочного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а основе положительных перемен, достигнутых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его года.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завершили обследование устья реки Ханга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завершили совмест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устья реки Ханган. Оно было начато 5 ноябр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в военной области, достигнутых 19 сентября. В связи с военной напряжённостью доступ гражданских судов к данному району был закрыт, и совмест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состоялось впервые за 65 лет с момента заключения перемирия. Цель проекта состоит в подготовке условий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совместного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дной артерии протяжённостью 70 км. Южнокорейская зона обследования проходит от деревни Ману-ри города Гха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до острова Мальдо в уезде Канхва-гун города Инчхона, 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 от деревни Имхан-ри уезда Пханмун-гун города Касона до деревни Хэнам-ри уезда Ёнан-гун провинции Хванхэ-Намдо. На основе проведённой работы к концу декабря стороны намерены создать подробную карту, которая будет впоследствии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интересах гражданского судоходства. Как сообщил зам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К Со Чжу Со,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гражданские суда Юга и Севера смогут свободно и безопасно курсировать в данном районе.

## В РК появится тематический парк Paramount

Тематический парк крупн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кинокомпании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впервые открое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США в район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Крупный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концертные залы для выступлений K-POP, пятизвёздочный отель, казино, конференц-центр и другие объекты.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чнё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и завершится в июне 2022 года. В инвестировании проекта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американская компания MGE, занимающаяся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ми комплексами и казино. Корпорац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намерена оказать максим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комплекса его будут ежегодно посещать около 3,6 млн человек.

##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Burning получает высокие оценки в мире

Фильм Burning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Ли Чхан Дона вошёл в список лучших картин 2018 года по версии американской газеты New York Times. 5 декабря ведущий кинокритик газеты Маноло Даргис представил свой рейтинг с рецензиями. Она поставила Burning на второе место, отметив, что Картина являет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удивительной и притягивающей. Премьера фильма состоялась 5 декабря. В нём описывается мистерия, в которой отражаются такие черты молодости как гнев, а также тёмные стороны жизни. Ранее фильм участвовал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Кан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обратив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мирового киносообщества. (RKI)

## Эксперт: "Главная роль России в Корее — поддержка мирного процесса"

На днях в Сеуле прош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миру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собрались чиновники, политики, ученые,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Россию, Китай, США, Южную Корею, Вьетнам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ключая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КНДР,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оединение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Юга и Севера и множество других акту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Среди гостей форума был и один из наиболее известных росси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по проблема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Георгий Давидович Толорая, возглавляющий Центр российской стратегии в Азии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РАН. Ученый согласился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 видением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а также рассказать об отношениях РФ с КНДР,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диалога между СШ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ах.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 первых полос мировых СМИ не сходит проблематика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то Вашингтон и Пхеньян угрожают друг друга в пепел превратить, то их президенты жмут друг другу руки и обнимаются. Теперь вот опять много информации о подготовке к новой встрече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Что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ит в плане диалога США и КНДР?

Георгий Толорая: Ситуация сейчас балансирует, может двинуться как в одну, так и в другую сторону. Все висит на тонкой ниточке, а эта ниточка называется "политическая воля Трампа". Ким Чен Ын затаился.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 из своих контактов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КНДР сейчас ждет, что американцы ей что-то предложат. По мнению Пхеньяна, они уже сделали достаточно шагов навстречу США, а потому теперь очередь Вашингтона на ответный ход, причем этот сигнал о готовности сделать данный шаг должен, как считает КНДР, поступить только с самого высшего уровня. Именно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северокорейцы отменили встречу Ким Ён Чхолья (главный переговорщик КНДР в контактах с США) с госсекретарем США Майком Помпео. Даже Помпео им сейчас на авторитет, северянам нужен посыл только от "лица № 1", то есть от Трампа.

"РГ": А какие американские ответные шаги могут устроить КНДР?

Толорая: Своего рода лакмусовая бумажка - это вопрос об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нкциях, об их отмене или хотя бы ослаблении. И дело тут не в том, что отмена санкций так уж необходима КНДР, что при санкциях они больше не продержатся, нет, это не так.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Север выдерживает. Но отмена санкций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в КНДР как показатель серьезности отношения США к диалогу с Пхеньяном. А пока отношение нынешнее - то есть ничего не предложено - то потому у Пхеньяна и подход: "А какой может быть разговор о каких-то дальнейших шагах?"

"РГ": А американцы готовы пойти на ответные шаги?

Толорая: Как показывают мои беседы в Вашингтоне, американцы подход КНДР в целом хорошо пони-

мают и знают. Но другой вопрос в том, что сам американский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й аппарат в целом не настроен на отмену санкций. По их мнению, все это будет движением в сторону, которая нужна КНДР, то есть в сторону призна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А на это американцы, в том числе и в силу своей врожденной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убежденности об американском превосходстве, согласиться не могут. Кроме того, Трамп тоже сказал, что отмена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КНДР возможна только посл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Так что ситуация непростая.

"РГ": Доводилось слышать разные интерпретации конкретно значения слова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По вашему мнению, что США понимают под словам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КНДР"?

Толорая: У самих США нет четкого понимания. Обычно они говорят: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полностью отказаться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о что именно это значит? Это только готовые ядерные боеголовки? Или также еще и ракеты, на которые могут установить боеголовки? Или еще и возможност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огда надо все ядерные объекты закрыть, шахты засыпать? А что делать с физиками-ядерщиками,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 это оружие? Их вообще расстрелять? Эти люди тоже попадают под поняти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То есть четкого ответа на это нет. А если нет, то понятно, что дальше КНДР не пойдут, а потому все это - путь в тупик.

"РГ": То есть выхода нет?

Толорая: Надеюсь, что есть. Может быть, это лишь моя попытка выдать желаемое за действительное, но у меня сложилось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эксперты в США сейчас ломают голову над тем, какую бы формулу придумать, что бы такое предложить КНДР, что устроило бы Пхеньян и было воспринято как "ответный шаг", позволив двигаться дальше. Потому что на простую отмену санкций, которую ждут в КНДР, в США пока идти не готовы. Похоже, что в Вашингтоне ищут какое-то компромиссное решение.

"РГ": А южан, учитывая нынешний мягкий подход Мун Чжэ Ина к КНДР, северяне как воспринимает?

Толорая: По моим ощущениям, Пхеньян уже четко разделяет Южную Корею и США и ведет разную политику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аждой из сторон. У них разные каналы общения с Югом и США, разные подходы. Пожалуй,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не приехали на эту конференцию в Сеуле, хотя их сюда приглашали. Вероятно, что КНДР считает, что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они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 только с СШ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проч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с Южной Кореей, а многосторонние механизмы уже просто и не нужны. Мне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у Ким Чен Ына хватит терпения не пойти на обострение ситуации и дожидаться того, когда США что-то предложат ему в качестве достойного ответного шага. Это тогда позволит продолжить процесс снижени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и отказа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РГ": Судя по подходу Пхеньяна, они не особо торопятся, у них нет кризиса в экономике, несмотря на санкции.... Какова ситуация

в экономике КНДР сейчас?

Толорая: Я уже сказал ранее, что они отнюдь не находятся на краю пропасти, нет. Ситуация в экономике КНДР,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весьма стабильная и в целом неплохая. Кур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воны нормальный, товарное наполнение внутреннего рынка тоже неплохое, может, кто-то пострадал от санкций, но в целом, это не кризис. Вот город Синьиджу собрались заново перестраивать, заявив о крупном проекте. То есть КНДР вопреки санкциям продолжает жить и как-то выкручивается.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Ким Чен Ын о чем-то договорился в ходе своих визитов в Китай с Си Цзиньпином, может, Ким пообещал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ока не нагнетать напряженность, а Китай гарантировал негласно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Потому вполне можно допустить, что стабильная ситуация в экономике КНДР и даже определенное развитие объясняет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мощью со стороны Китая, которую мы попросту не видим.

"РГ": А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КНДР при этом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 свои ракетные силы?

Толорая: Вполне! Тут стоит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они лишь прекратили ядерные и ракетные испытания. Ким не обещал прекра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Более того, если не ошибаюсь, то в своей новогодней речи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изводства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в массовом порядке. Он не обещал никому прекра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ракет. А потому логич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КНДР продолжает производить ракеты, что, как следствие, повышает ту цену, которую придется заплатить США и всем остальным за сворачивание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нынешнее затишье Ким Чен Ына устраивает.

"РГ": А других устраивает?

Толорая: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оссии точно устраивает. Сами посудите: в отличие от положения годичной давности, никто не собирается воевать в регионе, идут какие-то разговоры пр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анкции не отменяются, но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если США и будут отменять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КНДР, 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те мер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выгодны именно американскому бизнесу, а не нам. Не стоит питать иллюзий, что США вдруг будут помогать нам соединять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нет, американцы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отмену санкций для своей выгоды. Но в целом ситуация в регионе стабильная, пока угрозы конфликта нет, что для нас хорош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устраивает Китай.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се больше выходит из-под влияния КНР, общий контроль над ситуацией ускользает из китайских рук, что Пекину, конечно же, не нравится. Правда, как я уже сказал,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что Ким Чен Ын уже заранее договорился с Китаем о своих шагах, об общем подходе, когда КНДР не провоцирует напряженность, а КНР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что устраивает Пекин. Возможно и такое. В общем же ситуация в регионе стабилизировалась, наверное, этому надо всем радоваться.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федер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Билет в будущее»

26 шко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чали работу по ранн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для учеников 6-11 классов.

Задача проекта «Билет в будущее» – помочь ребятам в 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и. Школьникам даду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обраться в себе, узнать о своих сильных сторонах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ах, а также попробовать силы в различных профессиях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пытных наставников.

– До конца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в этом проект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3 тысяч ребят. Некоторые школьники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первому этапу тестирования. Всего таких этапов три. При условии прохождения всех тестов открывается доступ 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пробам – практик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погрузиться в какую-либо сферу и сформирова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профессии,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Практическ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пробы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12-13 декабря. Ребята смогут на практике оценить свои перспективы в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и, а также получить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планированию буду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проб в качестве наставников привлекут более 50 опытн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мастеро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Вс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школьникам будут предложены профпробы по 16 компетенциям: кондитерское дело, малярные и декоративные работы, сваро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толярное дело, технология моды, парикмахерское искусство, электромонтаж, графический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управление беспилотными летательными аппаратами, 3D-моделирование для компьютерных игр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йдут на площадках четырех учреждений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 также дет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Кванториум».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идею проекта «Билет в будущее»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формулировал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участник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Наставник».

## В Холмске сдали новые квартиры

Многоэтажные здания по улице Ливадных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начали возводить в октябре 2017 года, и сегодня были торжественно сда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оселами стали работники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сотрудники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На общей площади более 3,3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разместилось 32 однокомнатных и 18 двухкомнатных квартир. Дом построен по энергосберегающей технологии, зданию присвоен наивысший класс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и – А+. Монолитный конструктив способен выдержать землетрясение в 9 баллов.

Для отделки наружных стен использовался японский фасад. На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был уложен асфальт, во дворе установлены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обустроены игровы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зоны для отдыха.

– Квартиру ждала около года,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Холмска Валерия Данилова. – Сегодня один из лучших дней для моей семьи! Мы переезжаем в светлую и теплую двухкомнатную квартиру. А больше всех рада моя дочь Настя, ведь у нее будет собственная комнат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Анна Дедова переехала в Холмск из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 Мне нравится здесь жить, особенно теперь, когда у меня будет свой уголок. Хотя уголком мою новую квартиру сложно назвать – для однокомнатной она очень просторная. И ремонт отличный! Заходи, расставляй вещи по местам и живи, – рассказала Анна Дедова.

Это не первые жилые дома, построенные в Холмске для сдачи в коммерческий наем. В сентябре 2016 года 42 семьи заселились в многоэтажку по улице Советской. В ноябре этого года холмчане получили ключи от 30 квартир в доме на Школьной.

Теперь ряд новостроек пополнили многоэтажки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Ливадных, 25-А и 25-Б. Каждая – на 25 квартир.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овоселье в Холмске отметили уже 122 семь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возводятся еще один 60-квартирный арендный дом по улице Ливадных. Он будет сда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го для сдачи в коммерческий наем, стало действенным вариантом решения квартирного вопроса. Стоимость проживания в арендном доме на 50 процентов ниже среднерыночной, сложившейся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К примеру, однокомнатная квартира в Холмске обходится в 6,5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двухкомнатная – в 7 тысяч, а трехкомнатная – в 8 тысяч,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ипотечного агентства Геннадий Осипов.

Через полгода проживания в таком доме новоселы могут перевести оплату за аренду жилья в ипотеку на

льготных условиях. Для молодых ученых и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лужащих –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редит со ставкой 7 процентов годовых. Такие же условия действуют для семей с одним ребенком. Если у новоселов двое детей, ставка понижается до 3,5 процентов, если трое и более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еспроцентная ипотека. Ставка в 0 процентов доступна также жителям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 2016 года в 14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было сда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40 арендных домов.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получили более тысячи семе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озводится еще 41 многоэтажный дом для сдачи в коммерческий наем.

Новостройки делают приобретение и аренду недвижимост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и, помогают привлекать в районы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Жилье предназначае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узких» и редких профессий,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сотрудников предприятий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силовых ведомств.

## Переход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обращения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должен пройти незаметно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ую задачу перед глава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тав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Напомним, с 1 января 2019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инает работать новая система обращения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которая направлена на выполнение майских Указов Президента. Ее реализация к 2025 году позволит прийти к тому, что весь объем мусора будет поступать на полигоны или на комплексы по утилизации. В области внедрят систему раздельного накопления отходов, вторсырье направят на переработку, а все старые свалки ликвидируют или рекультивирую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работа по проведению конкурсных процедур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ена. Определен региональный оператор, который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утилизацией мусора –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Сформирован экономически обоснованный тариф на вывоз мусора. Дл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будут действовать полная стоимость – 729,9 рублей за кубический метр с НДС, а для жителей – немногим более его половины (55 процентов) – 4 рубля за квадратный метр жилой площади. По всем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разработана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В 2019 году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по рекультивации ныне действующих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 Переход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произойдет 1 января 2019 года. Задача муниципальных власте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и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почувствовали этот переход. В январские праздники надо следить, чтобы мусорные площадки очищались оперативно и скопления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не было, – заявил на совещани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По его словам, главы районов должны убедиться в наличии контейнерных площадок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воих округов. Еще одна задача – провести работу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предприятий, чтобы до 20 декабря они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ы по вывозу мусора.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работу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после собраний с собственниками жилья должны были определиться, оплатят ли они сумму за вывоз мусора из платы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щедомового имущества или добавят новую услугу. Последнее направление после 20 декабря начнут проверя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жилищной инспекции и прокуратуры.

– Это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язательный к исполнению. Для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разъяснительную работу с жителями, используя все механизмы: оповещения, собрания, сходы. Раз люди оплачивают вывоз мусора, то услуга должна оказываться надлежащим образом, – резюмиров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низилась подростков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Количество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в 2018 году сократилось на 17 процентов.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делам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и защите их прав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За девять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одростками совершено 166 преступлений. В 2017 году за этот же период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00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Ситуация улучшается. Работу в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олжать. Нам с вами надо внедрять новые формы работы, чтобы случаи преступ-

ности среди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неуклонно снижались,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ростков активно вовлекают в заняти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волонтерское движение. С этой целью инспекторы по делам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педагоги рассказывают детям и их родителям о работе кружков, клуб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любитель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спортивных секций. Важ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профилактики негативных проявлений стали турниры детских дворовых команд по хоккею с шайбой и футболу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против подворотни», а также молодежные лагеря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вступивших в конфликт с законом.

На комиссии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меры, принимаемы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ля снижения смертности и травматизма среди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В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ан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ей,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образования.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по 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Например, для снижения смертности детей от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оздана сеть школьных маршрутов. Перевозку осуществляют 102 специально оборудованных автобуса. Устаревший транспорт поэтапно заменяют на новый. Так, в 2018 году приобретено 16 школьных автобусов на сумму 44,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которые оснащены тахографом, а также аппаратурой спутниковой навигации ГЛОНАСС/GPS.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семейного неблагополучия и жестокого обращения с детьми. В 2018 году в области прошли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Правов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День правовой помощи детям,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эссе «Моя законодательная инициатива», областной конкурс рекламных плакатов «Телефон доверия – помощь ребенку и семье», День телефона довери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остоянно проводят 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и групповую работу с родителями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социально-негативных явлений в семье. В 2018 году всего организовано более 2,7 тысячи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равовому просвещению населения, участие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и почти 95 тысяч детей и родителей.

В текущем году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организации безопасного летнего отдыха, досуга и занятости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Почти 17 тысяч ребят, оказавш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отдохнули в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лагерях. Всего различными формами отдыха, оздоровления и труда были заняты около 8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детей. В 2018 году на организацию отдыха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з консолидированного бюджета области было выделено около 8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Это почти на четверть больше, чем в 2017 году.

##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гут узнать о мерах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 помощью интерактивного консультанта

Нов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сервис запущен на сайте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региона (<http://csp.admsakhalin.ru>).

Проект разработан для повышения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 мерах помощи. С помощью интерактивного консультанта граждане могут узнать, какие выплаты им положе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меющимся социальным статусом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ветеран труда, семья, имеющая ребенка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еработающий пенсионер).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свед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зайти в раздел «Интерактивный консультант» на сайте центра и заполнить все вкладки в открывшейся форме. Следует указать анкетные данные: дату рождения,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пол, семейное положение, социальный, трудовой статус. Затем нуж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пцией «Рассчитать». В результате, на экране появи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возможных выплатах с указанием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 Интерактивный консультант пока работает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и мы видим, что граждане довольно активно им пользуются. В удобной форм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л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м, на какие конкретны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человек вправе претендовать. Также сервис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рослава Захарова.

Расчет с помощью интерактивного консультанта является ориентировочным. Для уточнения выплат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щаться в отде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Также узнать о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можно,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услугами «Личный кабинет» и «Калькулятор расчета субсидий»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www.ms.admsakhalin.ru](http://www.ms.admsakhalin.ru)).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재단,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위문품 전달

2일(수) 인천 남동사할린센터, 안산 고향마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

안정적인 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 등 위한 실효적 법안 마련 노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연말을 맞아 전국 29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약 2천 8백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한우성 이사장과 재단 임직원들은 12일(수) 오후 인천 남동사할린센터, 안산 고향마을 등을 방문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생필품, 이불 등 위문품을 직접 건넸다.

또, 동포들과 함께 고향마을 시설을 둘러보고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함께 소통했다.

한 이사장은 "이번 방문과 위문품 전달이 영주귀국 동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재단은 안정적인 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효적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쌀과 생필품, 의료기기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우리말로 깨닫다]

### 두루봉과 두리봉

<두루봉>은 한자로 '주봉(周峰)' 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말 <두루>에 해당하는 한자 '주(周)' 를 붙여서 만든 이름으로 보입니다. 순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바꿀 때 어원까지 따지기보다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한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한자가 붙게 되는 예도 많습니다. 주봉은 '주(周)'의 해석이 '두루 주' 였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바꾼 이름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원적으로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야깃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두루봉>은 <두리봉>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의 '두루' 나 '두리' 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둥글다는 의미입니다. '두렵다' 가 중세국어에서는 둥글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두르다 등의 어휘를 생각해 보면 '둥글다' 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렵다는 둥글다 외에도 완전하다는 뜻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주변에서 보면 둥글다가 완전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루' 가 쓰이는 '두루뭉술하다' 등의 예를 보면 두루는 보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두리번거리다. 둘러보다 등에서 여러 곳으로 이어져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만약 두루봉, 두리봉의 모습이 둥글다면 둥근 산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 봉우리가 잇닿아 있다면 두루두루 있는 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편 두리다의 다른 의미로는 무섭다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에서 이 말이 두렵다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두렵다는 말은 현재도 쓰이는 말이죠. 역시 무섭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산세가 험한 경우라면 두리봉이 무섭다는 뜻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의 모양이 어떠한에 따라 어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두루봉, 두리봉은 전국에 걸쳐 나타납니다. 서로 기원이 다른 어휘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두리봉과 비슷한 두리산(豆里山)은 두류산(頭流山)으로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류산은 보통 백두에서 흘러내려 온 산으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로 높고 험한 산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두류산은 지리산(智異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조식 선생의 시조를 보면 '두류산 양단수' 로 시작하는데 이때 나오는 지명 두류산이 바로 지리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리산 역시 두루봉의 일종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두류산이라는 지명도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주로 산이 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루가 들어가는 말로는 '족두리' 와 '두루미'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족두리에서 두리는 머리라는 의미로 생각하거나 둥글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족두리의 아래 부분이 둥글다는 점에서는 둥글다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머리에 쓰는 물건이라는 점에서는 머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정범 교수님의 경우는 고개를 짓는 유아어인 '도리도리' 등과 연계하여 족두리의 '두리' 를 '머리' 의 의미로 보았습니다.

두루미의 경우는 '두루 + 미'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는 새의 의미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올빼미 등의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로 '매' 도 같은 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도 '-me' 가 들어가면 새의 이름이 많습니다. 카모메(갈매기), 쓰바메(제비) 등이 예입니다. 우리말에서 두루미와 비슷한 새인 황새의 경우 '한새' 에서 온 말로 한은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두루미의 두루도 크다는 의미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두루봉과 두리봉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능성을 몇 가지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둥글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봉우리가 둥글다면 여기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두렵다의 의미입니다. 높고 험준한 산이라면 무서운 산이라는 표현이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머리라는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보통 산의 꼭대기, 정상을 표현할 때 '산머리, 산마루' 라고 하므로 두리를 머리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한자로 표현할 때 두류산은 머리 두(頭)를 씁니다. 물론 백두(白頭)의 경우에도 두(頭)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한자가 보여주듯이 두루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산이 잇따라 있는 곳이라면 두루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두루봉과 두리봉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명을 찾아보았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지명도 찾아보았으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몇 권의 고어사전과 어원사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를 추출하였습니다. 다른 언어와의 엄밀한 비교, 방언의 요소를 더 찾아본다면 명확히 두루봉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직접 두루봉에 가서 본다면 어원이 눈앞에 확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 개의 별> 교육자들의 노래경연 우승자 발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제2회 <두 개의 별> 교육자 노래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학교들과 유치원들에서 뛰어난 2중창단 37쌍이 이 경연에 참가했다. 참가자 수는 작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2중창단들은 두 부문에서 경쟁했다. <교사와 학생>부문에서는 동양김나지아의 러시아어문학 교사인 이리나 소로키나와 홍정희 학생이 1위를 차지했고, <음악 교사와 학생>부문에서는 제1중학교 대표로 올라 주비나 교사와 마르크 예파네쉬니코프 학생이 1위를 했다.

본 대회는 <청년 교사 협회>지역단체가 주최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교육관리국, 사할린주 두마, 사할린주교사노동조합, 청소년예술회관이 후원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Две звез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второй городской вокальный конкурс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талантов "Две звезды". 37 замечательных дуэтов из школ и детских сад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увеличилось в 3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Дуэты смогли посостязаться в двух категориях: "Учитель и ученик", в ней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и Инна Сорокина, учи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и Хон Чон Хи из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в категории "Учитель музыки и ученик" — здесь первое место вз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школы №1: Ольга Дзюбина и Марк Епанешников.

Организатор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 СРО "Объединение молодых учителей" при поддержке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рофсоюза работников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ДЮТ.

### 사할린과 쿠릴에 곰 4천여 마리가 서식

2018년 수렵자원 국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할린주에 특수 불곰 4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 수렵 및 산림청이 전했다.

봄철 사냥 시기에는 섬지역에서 83마리의 불곰을 사냥했다. 11월 30일에 종료된 가을철 사냥 시기 결과는 나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냥 전문가들의 관찰에 따르면 사할린주에서는 곰 사냥에 설정된 한계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곰 사냥 시기에 곰이 사람을 습격한 사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가족에게는 운이 없게도 곰들로부터 30번이나 습격을 당했다.

###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асчитали около 4 тысяч медведей

Около 4 тысяч особей бурого медведя насчита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8 году посл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охотничьих ресурс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За период весенней охоты на островах добыли 83 медведя. Итоги осеннего сезона, который закончился 30 ноября, будут известны позднее. По наблюдениям охотоведов, установленный в области лимит добычи косялапых не осваивается и наполовину.

За минувший медвежий сезон не выявлено ни одного случая нападения на человека. Животным повезло меньше – косялапые покушались на их жизнь 30 раз.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One's PEACE** |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Кимпхо и Фонда культуры города Кимпхо

# Нас греют лучи мира

##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редставление**      **Концерт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15 декабря 2018г | Начало : 16 час.**  
**Вход бесплатный**



• Организатор |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рода Кимпхо · Фонд культуры города Кимпхо  
• Поддержка |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Уважаемые друзья!**

19 декабря в 17ч.30 мин.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фотовыставки известн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Де Сон Ена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Европе».

Вход свободный.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 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EDA.SAKH.COM**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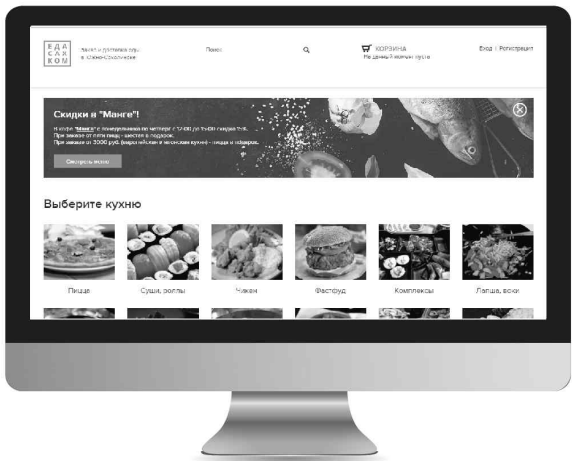
реклама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т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			<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